

## ‘نال로’, ‘세세로’ 유형 부사의 역사적 연구\*

김한결\*\* · 장고은\*\*\*

### [초 록]

이 글은 시간 간격의 반복을 의미하는 ‘نال로’, ‘세세로’ 유형 부사에 대한 통시적 해석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들은 형태·의미적으로 유사하기에 동류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형성 과정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نال로’류는 시간 명사와 조사 ‘로’의 통사적 구성에서 비롯하였다. 조사 ‘로’는 시간 반복의 용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선행하는 시간 명사와 결합하여 “매(每) X마다”라는 결합적 의미를 나타내었다. ‘نال로’류는 특정 문맥에서 제3의 의미를 얻어 ‘X로’ 전체가 어휘화를 겪기도 하였다. 이에 비하여 ‘세세로’류는 부사로 쓰이는 첩어 구성 ‘X’와 첩어에 ‘예(←에)’나 ‘로’가 결합한 ‘X예’, ‘X로’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계열관계를 이루었다. ‘세세로’류가 보이는 시간 반복의 의미는 첩어 구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때 ‘X예’, ‘X로’는 통시태로서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제어: 부사, 조사, 통사적 구성, 어휘화, ‘نال로’, ‘세세로’, 첩어  
Adverb, Postposition, Syntactic Construction, Lexicalization, ‘nalro’, ‘sesero’,  
Reduplicated Word

중세한국어 이전 시기의 어형들이 계승된 것이다.

## 1. 서론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사적 관점에서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로’<sup>1)</sup>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조사 ‘로’는 ‘방향, 지향점’, ‘경로’, ‘방식, 양상’, ‘재료, 원료’, ‘도구, 수단’, ‘변화’, ‘자격, 신분, 명성’, ‘판단’, ‘원인, 이유’, ‘선택’, ‘시간’ 등 매우 다양한 의미 용법을 가진다.<sup>2)</sup> 이 중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의 ‘로’가 결합하여 형성된 ‘X로’형 부사이다 (예: ‘날로, 때로, 세세로, 대대로’ 등).

이러한 ‘X로’에 포함된 ‘로’의 문법적 성격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시도된 바 있다. ‘로’에 대한 문법적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조사를 접사화한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서, 허웅(1975), 이양혜(2000) 등이 대표적이다. 허웅(1975, pp. 258-259)은 ‘진실로, 當時로, 간대로, ㅎ올로, 멀테로, 절로’ 등의 ‘-로’를 조사에서 온 접미사로 보고 이들을 공시적 파생어로 파악하였다. 이양혜(2000, p. 82)은 ‘-로’와 결합한 선행 요소가 다른 조사들과 통합이 제약되거나 불완전 어근으로서 문장의 다른 성분과 통사적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중시하여 이러한 경우 파생접미사화한 ‘-로’가 단어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두 번째 견해는 이러한 ‘로’를 조사로 보는 것이다. 남기심(1993, p. 374)은 동사의 개념구조에 포함될 수 없는 ‘NP + 로’를 부가어로 보고, 명사구와 ‘로’ 이외의 다른 조사의 결합 가능성에 따라 느슨한 결합과 공고한

1) 본고에서는 부사격조사 ‘로’와 ‘으로’의 대표형으로서 ‘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또한 본고에서 다루는 ‘X에’ 결합어의 선행 성분은 모두 ‘이’를 말씀으로 가지기 때문에, ‘X에’ 결합어는 ‘X에’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2) 이희자·이종희(2010)에서 조사 ‘로’의 의미 기술에 사용된 술어이다.

결합을 나누었다. [빈도]와 [시간]의 ‘NP + 로’는 다른 조사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고한 결합으로 분류되어 주제화나 분열문의 초점으로 변형이 가능한 예문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는 조사가 결합한 구성이 어휘화하여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로서, 구본관(1998), 최형용(2003), 손혜옥(2008)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본관(1998, p. 37)은 통사적 구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구성의 일부가 어휘화할 수 있다고 보고, ‘진실로, 새로, 날로, 본딴로’ 등은 의미상 ‘체언 + 조사’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복합형 전체가 부사로 굳어진 것으로 보았다[구본관(1998), p. 300]. 다만 통사 구성의 어휘화에 의해 이루어진 단어의 일부가 공식적으로 파생접미사로 발달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최형용(2003), 손혜옥(2008)도 선행요소와 조사가 결합한 구성이 굳어져 단어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은 동일하나, 이러한 단어의 범주에 대하여 최형용(2003)은 ‘통사적 결합어’, 손혜옥(2008)에서는 ‘조사결합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분석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이 글에서는 4종의 고어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 147개의<sup>4)</sup> ‘X로’ 어휘를 확보하고 이들을 선행 요소의 의미와 ‘X로’ 전체의 의미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본고가 주된 관심을 가진 것은 시간 반복의 의미가 드러나는 ‘X로’이다. 시간 반복과 관련된 ‘X로’의 ‘X’에는 다양한 언어 표현들이 올 수 있지만(2) 참조], 우리는 1음절 시간 개념어가 포함된 유형(이른바 ‘날로’류)과 첩어가 포함된 유형(이른바 ‘세세로’류)

3) ‘X로’와 관련한 논의에서 추가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미 부사로 성립한 단어에 붙어 다시 부사를 만들어내는 잉여적 파생접미사 ‘-로’이다. 이현희(2010)는 근대한국어에 부사 ‘외오’, ‘골오’, ‘별로’에 결합하여 ‘외오이’, ‘골오로’, ‘별로히’를 만들어내는 ‘-이’, ‘-로’, ‘-히’를, 문법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잉여적 존재로 파악한 바 있다. ‘골오로’의 ‘-로’는 조사로 볼 수 없고, 이는 이 시기 언중들이 가진 부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로’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4) 일부 사전에서는 ‘간대로, 간딴로’와 같은 이표기들을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147개라는 수치는 이 이표기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날로’류와 ‘세세로’류는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로’의 다양한 성격을 잘 보여주며, 여러 시기에 걸쳐 문증된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 2. 현대한국어 ‘X로’ 검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대한국어 사전을 바탕으로 시간과 관련된 조사 ‘로’의 용법을 살펴보겠다.

### (1) ㄱ. 로<sup>6</sup>

「조사」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9」 시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오늘 이후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겠다. / 그는 봄가을로 보약을 먹는다.

「10」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

『서울에 온 지 올해로 십 년이 된다(『표준국어대사전』. 이하 『표준』).

### ㄴ. 로<sup>2</sup>

조사

9. (ㄱ)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의 뒤에 붙어, ‘앞말이 뜻하는 시간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월서 접수는 오늘로 마감했다.

이형태: 으로<sup>1</sup> 참고어: 로써

(ㄴ)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의 뒤에 붙어, ‘앞말이 뜻하는 시간부터’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나는 엇그제로 담배를 끊었어.

(ㄷ)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의 뒤에 붙어,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이건 봄가을로 심는 농작물입니다(『고려대』 한국 어대사전』. 이하 『고려』).

ㄷ. 로 [조사]

VIII. ‘시간’을 뜻함.

- 1. [행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그러한 때에’의 뜻을 나타냄.

관련어: 에

『어부들이 밤으로 배를 타고 나가 잡아온 고기들이 아낙네들이 새벽에 와서 받아 부산으로 가져간다.

- 2.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까지 포함해서 말하면’의 뜻을 나타냄.

비슷한말: 로써

참고: 동작이나 상황이 끝나거나 시작됨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임

『그가 오늘로 마지막 근무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 3. [몇몇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부터, ~를 기점으로 하여’의 뜻을 나타냄.

관련어: 로부터

『그 여자 남편이 추자도로 삼치잡이 나갔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후로 딸 둘 아들 하나를 혼자 힘으로 키웠다(『연세 한국어 사전』. 이하 『연세』).

현대한국어 사전은 조사 ‘로’의 시간 관련 용법을 크게 셋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준』은 시간의 ‘로’를 둘로 나누어 「9」의 ‘시간’과 「10」의 ‘시간을 셈할 때 셈의 한계’로 나누고 있지만, 『고려』와 『연세』는 『표준』의 「9」의 ‘시간’을 세분화하여 ‘앞 말이 뜻하는 시간부터’와 ‘그러한 때에’를 구분하였다. 이때, ‘시간을 셈할 때 셈의 한계’나 ‘앞 말이 뜻하는 시

간부터’의 의항은 조사 ‘로’의 방향의 용법과 연관이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시간 관련 ‘로’의 용법은 그 외의 의미, 즉 사전에서 ‘그러한 때에’로 기술된 의항이다.

사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조사 ‘로’의 시간적 용법은 “행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에 쓰인다는 특징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때에’라는 시점을 나타내는 조사 ‘에’와 시간의 ‘로’의 가장 큰 차이는 ‘로’에는 이러한 반복의 의미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의 ‘로’의 선행요소는 반복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된 듯하다. \*‘오늘로, \*그저께로, \*3월 1일로’ 등의 결합은 우리의 시간의 ‘로’의 의미로는 불가능하다. 현대한국어에서 가능한 표현인 ‘밤으로, 아침저녁으로, 봄가을로, 밤낮으로’ 외에 역시 개념적으로는 반복되는 시간 명사와의 결합인 \*‘낮으로, \*2시로, \*봄으로, \*여름겨울로’ 등은 매우 어색하다. 이것은 시간의 조사 ‘에’가 거의 모든 시간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시간의 ‘로’는 선행 요소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으로 굴절보다 파생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대한국어 사전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로’가 쓰인 단어 중 일부를 부사로 보고 표제어로 실고 있다.

- (2) ㄱ. 날로, 때로, 무시(無時)로, 수시(隨時)로, 대대(代代)로, 때때로, 시시(時時)로, 시시대때(時時--)로, 세세대대(世世代代)로
- ㄴ. 날로달로
- ㄴ. 세세(世世)로, 무상시(無常時)로, 시시각각(時時刻刻)으로
- ㄷ. 밤으로, 새벽으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봄가을로, 밤낮으로, 낮밤으로, 아침저녁으로, 조석(朝夕)으로, 주야(晝夜)로

(2)는 ‘X로’형 단어를 『표준』의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2ㄱ), (2ㄴ)은 『표준』에 부사로 등재되어 있다. (2ㄴ)의 어휘들은 ‘로’를

제외한 ‘세세’, ‘무상시’, ‘시시각각’이 명사로 등재되고 “흔히 ‘X로’ 꼴로 쓰여”라는 단서가 붙거나 용례에서 조사 ‘로’ 결합형을 보이고 있다. (2ㄷ)의 부사어는 사전에 부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현대한국어에서 명사에 시간의 ‘로’가 결합한 부사어는 (2ㄷ) 정도에 불과하다. (2)의 표현들은 모두 “‘X’의 시간 반복”이라는 의미상의 공통점이 있다. 즉 ‘날로’는 “날이 갈수록”이라고 풀이되는데, 이는 ‘날’이라는 시간의 반복과 관련이 있으며, ‘때로, 때때로, 무시로, 수시로’ 등은 비록 정해진 때는 없지만 사건이 반복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밤으로’는 “매일 밤마다”, 즉 ‘하루’라는 시간의 일부분인 ‘밤’이 하루의 반복에 따라 반복되는 것과 관련된다. 이들의 의미상의 공통점은 ‘X로’라는 형식상의 공통점과 관련될 것이나, (2)의 사전 처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이들의 문법적 성격과 그 내적 구조는 현대한국어 공시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이들의 기원과 발달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2)를 다시 시간 단위 명사가 포함된 ‘날로’류와 첩어가 포함된 ‘세세로’류로 나누어 그 형태·통사론적 성격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3. ‘날로’류의 역사적 해석

이 장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의 ‘X로’ 부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X로’ 부사어는 의미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3) ㄱ. 날로, 달로, 히로
- ㄴ. 𑖧로, 𑖧로

하나는 (3ㄱ)과 같이 ‘날, 달, 희’ 등 일정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명사와 ‘로’가 결합한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3ㄴ)과 같이 시간을 의미하는 ‘일, 時’와 ‘로’가 결합한 경우이다. ‘일, 時’가 계절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시간 단위명사로 볼 수 있으나, 특정적이지 않은 ‘시간’이라는 의미로 쓰이면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한다. 우리는 각각을 ‘날로’류와 ‘때로’류로 지칭하겠다.

먼저, ‘날로’류의 예를 살펴보자.

- (4) ㄱ. 사람마다 희여 수비 니겨 날로 뿌매 便安키 호고져 흥 썩  
 르미니라(欲使人人으로 易習호야 便於日用耳니라) <훈민  
 정음언해 3b>
- ㄴ. 날로 불근 조히 서구물 든느니 / 치워셔 翠華스 보물 기들  
 우느니라(日聞紅粟腐 寒待翠華春) <두시언해 초간본 5:14b>
- ㄷ. 實로 희로 變호며 엇데 희로 變홀 썩니리잇고 썩 兼호야  
들로 化호며 엇데 들로 化홀 썩르미리잇고 兼호야 썩 날  
로 읍느니(實爲年變이며 豈惟年變이리잇고 亦兼月化ㅣ며  
 何直月化ㅣ리잇고 兼又日遷호느니) <능엄경언해 2:7a>
- ㄹ. 들로 梁漢엿 ㅂ를 눈화 주시고 / 보믹 水衡엿 돈을 주시닛  
 다(月分梁漢米 春給水衡錢) <두시언해 초간본 20:17a>

(4)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날로, 들로, 희로’가 쓰인 예이다. 이들은 서술어 ‘쓰-(用), 듣-(聞), 變호-, 化호-, 읍-, 눈화 주(分)’ 등의 앞에 쓰여 그러한 행위가 “매일, 매달, 매년” 반복됨을 나타낸다. (4ㄷ)은 특히 한문 원문의 ‘年’, ‘月’, ‘日’이 ‘變’, ‘化’, ‘遷’의 목적어가 아니라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의 의미의 부사로 쓰인 것에 주의해야 한다. (4)의 ‘X로’ 구성에서 ‘X’의 의미는 “X의 시간이 반복됨에 따라, 매(每) X마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의 ‘로’는 시간의 조사 ‘로’로써, 현대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행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에”로 기술될 수

있다. (4)와 같은 예는 시간 단위명사와 시간의 조사 ‘로’가 투명하게 결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은 중세한국어 시기 ‘X로’의 ‘X’ 자리에 구 구성이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 ㄱ. 날와 들와 歲와 時와 念念에 올마 變호니 네 세 서린 제 이 河 窟 제와 나히 열세헤 니르러 그 므리 엇더호더노(且月歲時로 念念에 遷變호니 則汝 | 三歲에 見此河時와 至年十三호야 其水云何호더노) <능엄경언해 2:8b>
- ㄴ. 비호논 물이 千이나 호더니 날이며 들로 ㄱ다드마 文章을 호되(學徒 | 千數 | 러니 且月刮剗호야 爲文章호되) <소학언해 6:9a>
- ㄴ'. 선비들히 일천이나 호더니 날마다 들마다 ㄱ다드마 文章호되(學徒 | 千數 | 러니 且月刮剗호야 爲文章호되) <번역소학 9:9b-10a>

(5)는 ‘날와 들와 歲와 時와’, ‘날이며 들’이라는 구 구성과 ‘로’가 통합한 예이다. ‘로’가 구에 통합하고 있으므로 그 문법적 성격이 조사임이 분명하다. 이때 (5)의 ‘명사구 + 로’의 의미도 앞서 (4)에서 살펴본 ‘X로’와 동일하다. 즉, “매(每) X마다”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와’나 ‘이며’로 연결된 각각의 명사 ‘X’가 반복되는 시간의 간격을 의미한다. (5ㄴ)의 경우 같은 구절이 『번역소학』에서는 ‘날마다 들마다’로 언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조사 ‘마다’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는 조사 ‘로’의 쓰임인 것이다.

한편, 중세한국어 시기 ‘날로’류는 후행하는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ㄱ 오) <중용언해 30a>

ㄱ'. 日로 省호며 月로 試호야 既虞이 事에 稱케 호문 써 百工  
을 勸호는 배오 <중용율곡선생언해 32b>

ㄴ. 탄핵호는 상소가 늘노 이르되 보지 못호 테호야 <독립신문  
1898.10.12>

ㄷ. 그러나 들로 祭餼과 享嘗호는 分別이 이신 則 <가례언해  
10:7b>

ㄹ. 조목 칠은 히로 나가는 례산 밖의 특별히 지출호야 쓰는  
금익을 판비호는 일 <독립신문 1896.10.1>

(8) ㄱ. 기혈이 날로 허호야 구키 어려운 디경의 니르니(使氣血益  
虛而變癥雜出 以至難救) <두창경험방 11b>

ㄴ. 호포로 말호진디 인구 슈효는 늘로 더 붓는디 호적 정스는  
실상이 업고 물화는 날로 부러나되 세에 유무되는 폐단이  
만호야 <독립신문 1897.5.11>

ㄷ. 분관 영남 다다 관역 달노 날노 점점 느러 <전설인과곡 권  
선곡 1a>

ㄹ. 혹은 굴으디 아라샤의 疇경이 해로 부러나는 軍비에 응용  
호기 룡치 못호에 말미암음이라고도 호며 <독립신문 1899.  
10.16>

(7)은 근대한국어 시기의 ‘날로’류가 “매(每) X마다”의 의미로만 쓰인 예  
이고, (8)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예이다. (7ㄱ)  
의 ‘날로’, ‘들로’는 (7ㄱ)에서는 ‘日로’, ‘月로’로 나타나, ‘날로, 들로’가  
체언과 조사의 결합임이 잘 드러난다. 근대한국어 시기의 ‘날로’류는 (7)  
과 같이 “매(每) X마다”의 의미로만 쓰인 경우보다 (8)과 같이 “시간이  
갈수록”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많다. (8ㄱ)에서 한문 원문의 ‘益’을 ‘날  
로’로 언해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시간이 갈수록”의 의미는 ‘X  
로 V호고 Y로 V호-’ 구문으로도 자주 나타나며, 현대한국어의 부사 ‘날  
로달로’는 이러한 구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날로’류 부사어는 한문의 ‘日, 月, 歲’ 등의 부사적 용법과 관련된다. 한문에서는 “날마다”의 의미를 ‘日日’, ‘每日’ 혹은 ‘日’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를 언해할 때 ‘日日’, ‘每日’은 보통 ‘나날, 나날이, 날마다, 每日’ 등으로, ‘日’은 주로 ‘날로’로 번역하였다. “달마다”나 “해마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날로’류는 첩어 구성인 ‘나날, 다달’이 다시 ‘X로’형 부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술할 ‘때로’류와 차이를 보인다.<sup>6)</sup>

동일한 원문을 2회 이상 언해한 경우, 이른 시기에 쓰인 ‘X로’가 ‘X마다’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

- (9) 가. 이 세 할 더디 아니하면 비록 날로 三牲 奉養을 써도 오히려 不孝 | 니라(此三者를 不除하면 雖日用三牲之養하야도 猶爲不孝也 | 니라) <내훈 1:46b>
- 가'. 이 세 가지를 더디 아니하면 비록 날마다 三牲으로 봉양함을 쓸지라도 [三牲은 쇼와 양과 돌티라] 오히려 不孝 | 되느니라 <어제내훈 1:37b-38a>
- 나. 孟子 | 곶으샤디 이제 人이 날로 그 隣人 雞를 攘히리 잇거든 [...] 들로 一雞를 攘하야 써 來年을 기다린 然後에 已홈이로다(孟子 | 曰 今有人이 日攘其隣之雞者 | 어든 [...] 月攘一雞하야 以待來年然後에 已로다) <맹자언해 6:24a-24b>
- 나'. 孟子 | 마르샤디 이제 人이 날마다 그 닭을 鷄를 攘히리 잇거늘 [...] 들마다 한 닭을 攘하야 써 來年을 기다린 後에 말오려 홈이로다 <맹자율곡선생언해 3:65a>

(9가)은 한문 원문의 ‘日’이 15세기에는 ‘날로’로 언해되고 18세기에는 ‘날마다’로 언해된 예이며, (9나)은 ‘日, 月’이 16세기에는 ‘날로, 들로’로 언해되고 17세기에는 ‘날마다, 들마다’로 언해된 예이다. 이전 시기에

6) 우리는 구글 검색을 통해 ‘나날로’ 악화되는 한일 관계’와 같은 용례를 확보하였다. ‘나날로’와 같은 표현에는 첩어 구성과 ‘X로’를 동시에 씌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강조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의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날로’류로 언해된 것이 후대에 간행된 문헌에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9)와 같이 ‘날마다’류로 바뀐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날로’류의 쓰임에서 “시간이 갈수록”의 의미 용법이 확장됨에 따라 ‘날마다’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양상은 조사 ‘로’의 시간적 용법이 약화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으로, ‘X로’의 두 번째 유형인 ‘때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때”를 의미하는 15세기 어형은 ‘뵙’이다. 현대한국어의 ‘때’가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의 의미뿐 아니라 “계절, 절기”, “어떤 경우” 등의 의미도 가지는 것처럼 중세한국어의 ‘뵙’도 그러하였다. ‘뵙’에 ‘로’가 결합한 ‘뵙로’는 앞서 살펴본 ‘날로’류와 마찬가지로 “每 X마다”, 즉 “때마다, 때에 맞추어, 시절에 맞추어”의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현대한국어의 ‘때로’와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의 의미나 “때때로, 가끔, 종종”의 빈도부사의 용법도 보였다.

(10) 時節人 사르미 바히트 가온딧 뵙들 알오져 흐린덴 기픈 새 뵙  
로 그흔 구름과 도라오는다(時人이 欲識巖中意ㄴ뵙 幽禽이  
時與斷雲還흐는다) <남명집언해 上:58a>

(11) ㄱ. 길히 뵙로 通흐락 마그락 흐는니(道路時通塞) <두시언해  
초간본 11:53a>

ㄴ. 之子를 뵙로 서르 보니 사르물 마자드려 나췌 興으로 머물  
우는다(之子時相見 遊人晚興留) <두시언해 초간본 9:12b>

(10)은 “때에 맞추어, 때에 따라”의 의미로 해석되고, (11ㄱ)은 “경우에 따라서”, (11ㄴ)은 “때때로, 종종”의 의미로 해석되는 ‘뵙로’의 예이다. 모두 한문에서 부사적으로 쓰인 ‘時’를 언해한 것이다. ‘時’는 다음과 같이 ‘時로’로 언해되기도 하였다.

- (12) 게을어 머리를 時로 빗고 / 艱難호매 셋 들에 더늦다(懶慢頭 時櫛 艱難帶減圍 [三月이 爲一時니 言懶於梳頭也 | 라 下句 言憂患而瘦瘠也 | 라]) <두시언해 초간본 10:36a>
- (13) ㄱ. 篋中에 옛 부디 이실식 / 슬픈 ㅼ디 니르거늘 時로 ㅼ 자바 스노라(篋中有舊筆 情至時復援) <두시언해 초간본 6:50b>  
 ㄴ. 東녇 ㅁ올서 時로 ㅼ르매 글 스고 / 南녇 ㅁ르매서 나날 ㅼ시우를 두드리늦다(東郡時題壁 南湖日扣舷) <두시언해 초간본 20:7b>

(12)의 ‘時로’의 ‘時’는 ‘三月이 爲一時니’와 같은 주에서 보듯 계절을 의미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머리를 빗기에 게으르다는 것이다. (13)은 이와 달리 “때때로, 종종”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13ㄴ)의 후행 문맥에 서는 부사적으로 쓰인 ‘日’이 ‘나날’로 언해되기도 하였다.

앞서 ‘날로’의 의미와 용법을 둘로 나누어 본 것과 마찬가지로, 중세한 국어 시기의 ‘ㅼ로’, ‘時로’도 그렇게 나누어진다. 즉, 체언과 조사의 결합적 의미인 “每 X마다”로 해석할 수 있는 (10), (12)의 것과, 문맥에 의해 “경우에 따라서, 때때로, 종종”의 제3의 의미를 보이는 (11), (13)의 것이 그것이다.

‘ㅼ’는 15세기 이후로는 잘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ㅼ’가 주로 사용된다. ‘ㅼ(>ㅼ)’ 역시 ‘X로’ 부사어인 ‘ㅼ로(>ㅼ로)’를 보이는데 그 의미적 특징은 앞에서 살펴본 ‘ㅼ로’와 동일하다.

- (14) ㄱ. 朝와 聘을 ㅼ로 ㅼ ㅎ며 往을 厚히 ㅎ고 來를 薄히 ㅎ은 ㅼ 諸侯를 懷 ㅎ는 배나라(朝聘以時 ㅎ며 厚往而薄來 旆 所以懷諸侯也 | 나라) <중용언해 30a-30b>  
 ㄴ. 족등의 어른이오 어딘 자 ㅎ 사름을 글희여 그 회계를 주 ㅎ고 출납을 ㅼ로 ㅎ야 ㅎ르 ㅼ인을 ㅼ ㅎ 되를 주고(擇族之長而賢者一人主其計而時其出納焉 日食人米一升) <중덕

신편 上:29a>

ㄷ. 남녁 바람이 새로 부로미여 가히 뼈 내 빅성의 직물을 두  
텃게 흐리로다(南風之時兮여 可以阜吾民之財兮로다) <십  
구사략언해 영영판 1:18a>

(15) ㄱ. 못즈와 굴오딧 고인이 날오딧 혈기는 새로 쇠희미 잇거  
니와 디고는 쇠희 새 업느니(問曰古人云 血氣有<sup>時</sup>而衰 志  
氣焉時) <어제경세문답 34a>

ㄴ. 새로 혹 경음의셔 더<sup>히</sup>야 난만히 슈작<sup>히</sup>니 <천의소감언  
해 4:69b>

ㄷ. 흥상 흔 디방에 계시지 아니<sup>히</sup>고 새로 회당에도 계시고  
새로 산 우희도 계시며 새로 밧 가운데도 계시며 혹 빅  
우희 계시며 <훈아진언 15b>

(16) ㄱ. 새로 以時 souvent, fréquemment, de temps en temps, sans  
cesse. <한불사전 451>

ㄴ. 새로 以時 frequently; often; from time to time. <한영사전  
627>

ㄷ. 범부 대신은 [...] 한성 직판쇼의 스무와 안건을 새로 감  
시<sup>히</sup>고 <독립신문 1897.11.4>

(17) 나라 사랑<sup>하</sup>는 마음이 씩로 음도드며 날노 흥<sup>하</sup>다 <sup>히</sup>더라  
<매일신문 1898.6.11>

(14)~(17)은 근대한국어 시기 ‘새로’의 예이다. (14)는 ‘새로’가 “때(시기)에 맞추어, 때에 따라”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14ㄱ), (14ㄴ)의 예는 ‘NP를 새로 (뼈) 흐-’의 구문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15)는 ‘새로’가 부사 ‘혹’과 함께 쓰이거나 대조의 문맥에 쓰여 “경우에 따라서”의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16)의 ‘새로’는 빈도부사로 쓰인 예이다. (16ㄱ), (16ㄴ)에서 보듯 대역사전에서 ‘새로’가 표제어로 제시되고 그 대당어로 “빈번히, 자주, 때때로, 가끔”에 해당하는 표현이 제시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17)은 (8)에서 살펴본 ‘X로 V<sup>히</sup>고 Y로 V<sup>히</sup>’ 구문에 쓰인 ‘씩’의 예로, 구문

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15)~(17)의 ‘새로’는 체언과 조사 결합 이상의, 제3의 의미를 획득한 것이다. 근대한국어 시기의 ‘時로’도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 (18) 六年에 五服이 扃 번 朝<sub>ᄃᆞ</sub>거든 ㅅ 六年에 王이 時로 巡<sub>ᄃᆞ</sub>야  
(六年에 五服이 一朝 | 어든 又六年에 王乃時巡<sub>ᄃᆞ</sub>야) <서전  
언해 5:28b>
- (19) 子 | ㄱㄹ샤디 學<sub>ᄃᆞ</sub>야 時로 習<sub>ᄃᆞ</sub>면 ㅅᄃᆞ 說<sub>ᄃᆞ</sub>디 아니라(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논어올곡선생언해 1:1a>
- (20) 방꿈에 동양 형세가 ㄴ노 위<sub>ᄃᆞ</sub>고 ㅅ로 급<sub>ᄃᆞ</sub>지라 <매일신문  
1898.6.2>

(18)은 ‘時로’가 “때에 따라, 때에 맞추어”의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예는 주로 한문을 원문으로 한 언해문에서 발견된다. (19)는 ‘時로’가 “때때로, 종종”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20)은 ‘時로’가 ‘X로 V<sub>ᄃᆞ</sub>고 Y로 V<sub>ᄃᆞ</sub>’ 구문에 쓰여 “시시각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의 의미로 해석되는 예이다. 근대한국어 시기 ‘時로’의 용례는 많지 않은데, 이는 유의 관계에 있는 ‘새로’, ‘시시로’, ‘새새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후술됨).

논의를 마치기에 앞서 근대한국어 시기부터 나타나는 ‘밤으로’류를 살펴 보겠다.<sup>7)</sup>

7) 중세한국어 시기에도 『번역소학』에 아래와 같이 ‘밤으로’가 나타난다.

- ㄱ. 계지비 잇디 아니커든 고매 뵈셔슈매 ㅅ간도 ㅅ으로 當舖 ㅅ말 디니라(妻 | 不在어든 妾御 | 莫敢當夕이니라) <번역소학 3:18a>
- ㄱ'. 안해 잇디 아니커든 ㅅ의 뵈심이 敢히 나죄를 當舖 ㅅ말 디니라 <소학언해 2:51a>

(ㄱ)은 “부인이 있지 않거든 첩이 모시되, 잠시도 ㅅ으로는 담당하지 말아야 한다”의 문맥에서 ‘밤으로’가 “밤으로는, 밤에는”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이때의 ‘로’는 선택의 ‘로’로 해석되므로 (ㄱ)의 예는 우리의 논의와 거리가 멀다. (ㄱ)에

- (21) 널진이를 밤마당 빙소방의 늪 숨겨 내여 간다 ㅎ여 니룬다  
 ㅎ니 [...] 이제 아므려 널진이를 밤으로 빈소방의 드려간다  
 ㅎ여도 나 혼자 아니 이시니 늪은 고지 아니 드르려니와 <현  
 풍곽씨언간 59>

(21)의 ‘밤으로’는 “밤에, 밤마다”로 풀이되며[백두현(2003), p. 211], ‘밤마당’으로도 나타난다. 이처럼 ‘밤으로’에는 매일 밤 반복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시간의 조사 ‘로’에서 비롯된 것이다.<sup>8)</sup> ‘밤으로’의 ‘X로’ 구성은 시간 명사와 조사 ‘로’가 결합한 통사적 구성이다. ‘밤으로’는 문맥상 “남몰래”라는 의미를 함의하나 이것이 어휘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2c)에서 살펴본 현대한국어의 시간의 조사 ‘로’는 매우 제한적인 결합을 보이는데, 이는 근대한국어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용례 중 ‘X’가 한 단어인 경우는 ‘밤으로’가 유일하며, 주로 ‘밤낮으로, 아침나죄로, 도석으로’ 등과 같이 ‘XY로’ 구성으로 나타났다.<sup>9)</sup>

요컨대, 중세한국어 시기의 시간 반복과 관련된 ‘X로’는 “매(每) X마다”의 의미를 지니는 조사 ‘로’와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 요소가 결합한 통사적 구성에서 비롯하였다. “날마다”의 의미로 쓰이는 ‘날로’나 “때마다, 때에 맞추어”의 의미로 쓰이는 ‘뵈로’는 그 내적 구성이 투명한 통사적 구성이다. 이들은 특정 문맥에 자주 쓰이면서 제3의 의미를 얻기도

---

서 보듯, 『소학언해』에는 동일한 표현이 ‘나죄로’로 언해되었다.

- 8) 아래에 제시한 예문과 같이 후행하는 사건이 1회적인 경우의 ‘밤으로’는 “밤마다”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때의 ‘로’는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의 의미로 쓰여, “(그날) 밤 안으로”로 해석되므로 우리의 논의에서 제외된다.

서리 역줄을 다리고 밤으로 행하여 권찰방 집 동리로 드러가니 동방이 발고져 하엿더라 <신계후전 27>

- 9) ‘XY로’ 구성은 ‘XY’, ‘XY에’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4장에서 다루는 ‘세세로’류의 공존 양상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한다. 예컨대, ‘날로’는 “시간이 갈수록”의 의미를 얻고, ‘쁘로’는 “경우에 따라서”, “때때로, 종종”의 의미를 얻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합성적인 의미 용법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들 단어는 어휘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하여 “날마다”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예: 보조사 ‘마다’ 결합)을 사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시간의 조사 ‘로’의 용법은 더욱 위축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사 ‘로’의 시간적 용법은 ‘밤으로, 밤낮으로’ 등 극소수의 표현과의 결합을 유지한 채 현대한국어에 이어진다.

#### 4. ‘세세로’류의 역사적 해석

시간의 반복은 어근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른바 시간을 나타내는 첩어 구성이 그것이다. 이 첩어는 이미 그 자체로서 시간의 반복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다시 문법 요소 ‘로’가 결합된 것이다. 우리가 확보한 해당 부사들은 아래와 같다.

- (22) ㄱ. 세세로, 디디로  
 ㄴ. 념념으로, 쎄쎄로, 시시로, 츄츄로

이상의 단어들은 모두 첩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편의상 ‘세세로’류로 불러둔다. 이 중에서 (22ㄱ)은 중세한국어부터 확인되는 유형이고, (22ㄴ)은 근대한국어 이후부터 확인되는 유형이다.

먼저, 중세한국어의 ‘세세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23) ㄱ. 부테 卍世예 브즈러니 受苦<sub>호</sub>샤 衆生<sub>의</sub>계 慈悲<sub>호</sub>샤 이  
 法을 得<sub>호</sub>샤 님 爲<sub>호</sub>야 니르시니(佛世<sub>勤</sub>苦 慈悲<sub>衆</sub>生學  
 得是法 爲人顯說) <월인석보 25:3a>

- ㄴ. 世世로 絲綸 그습아로미 아롭다오물 알오져 흘덴(欲知世掌絲綸美) <두시언해 초간본 6:4b>
- ㄷ. 世世 나매 부터 보아 法 드리 그르초물 信受호리라(世世所生애 見佛聞法호야 信受敎誨호리라) <법화경언해 6:15a>
- ㄹ. 세세마다 사는 고대 관음보살이 여히디 아니호실식(世世生處의 觀音自在不離호실식) <육자신주 25b-26a>

한문 원문의 ‘世(世)’는 일반적으로 ‘世世예’로 이해되었지만, ‘世世로’나 ‘世世’로도 이해되었다. 16세기 이후부터는 한글 표기인 ‘세세로’도 등장하지만, ‘世世예’, ‘세세예’는 찾기 힘들게 된다. (23ㄹ)은 ‘世世’가 ‘世世마다’로 이해된 예인데,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서는 유일례에 해당한다. 이때의 보조사 ‘마다’는 선행하는 ‘世世’의 의미를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世世, 世世예, 世世로’는 모두 “‘世’라는 시간이 반복됨”을 의미한다.

한문 ‘代代’, ‘時時’에 대한 언해도 위와 비슷하다.

- (24) ㄱ. 燈燈이 서르 니석 반드기 쁘디 아니호야 代代예 흘러 通行호야 祖宗을 떠놋다(燈燈相續方不滅 代代流通振祖宗) <진언권공 12a>
- ㄴ. 내 조상은 되되 어딜고 내 남진도 글이며 활이며 잘호야 (清德喪世 皇甫氏文武上才) <삼강행실도 동경대본 열녀도 9a>
- ㄷ. 한역기도 급데호여 벼슬 참정지 호여 되되로 혼인늘 그치디 아니호더라(韓亦登第仕皆至參政爲婚姻不絕) <이륜행실도 옥산 41a>
- (25) ㄱ. 내 비록 다른 나라해 이셔도 時時예 說法흥 사르미 내 모를 보기 호며(我雖在異國 時時令說法者得見我身) <월인석보 15:58b>
- ㄴ. 時時예 角抵戲를 써도 쏘 風塵에 섰디 아니호느니라(時

時用抵戲 亦未雜風塵) <두시언해 초간본 6:12b>

‘代代’는 15세기에 ‘代代예’로 언해되었으나, 16세기부터는 ‘딤딤로’ 및 ‘딤딤’로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이 ‘代代예’나 ‘딤딤로’, ‘딤딤’ 등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지닌 부사였다. ‘代代’에는 ‘예(←에)’나 ‘로’만이 결합하고 다른 격조사들은 결합하지 않았다. 중세한국어 ‘時時예’는 ‘時時’에 대한 언해로서, 이는 ‘世世’나 ‘代代’를 ‘X예’로 언해한 사실과 일치한다. 다만 ‘時時’가 단독의 부사로서 쓰이거나 ‘時時로’로 쓰였던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代’나 ‘時’가 반복된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부사였다. 중세한국어에는 ‘뻬’(>썰)의 첨어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뻬뻬로’, ‘\*썰썰로’와 같은 단어도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시간 간격의 반복을 나타내는 ‘세세로’류에는 매우 제한된 문법 요소만 결합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15세기 중세한국어 이전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 (26) ㄱ. 又 出家者 1 {於}出家位 7 中 3 + 時時 3 + 略 考 四種 所  
作 {有} 4 나 5 7 1 <유가사지론 08:12-13>
- ㄴ. 三 {於}時時 中 3 + 聚落 3 + 遊行 3 3 3 3 乞食 3 3 7 所  
作 1 1 1 <유가사지론 08:19-20>
- ㄷ. 謂 1 時時 間 3 + 諮受 3 3 3 讀 3 3 3 誦 3 3 3 論量 決擇 3  
3 3 3 3 勤 7 善品 乙 修 3 3 3 1 1 <유가사지론 17:  
19-20>
- ㄹ. 數 3 入 3 3 3 數 3 出 3 3 3 3 3 速疾 通慧 乙 證得 3 {爲欲}  
3 定圓滿 乙 依 3 樂 3 正法 乙 聞 3 3 3 3 3 故 3 {於}時  
時 7 中 3 + 懇懃 請問 3 3 <유가사지론 15:22-16:01>

『유가사지론』의 ‘時時’에는 ‘時時 3 +’, ‘時時 {中, 間} 3 +’, ‘時時 7 中 3 +’ 등으로 구결이 달려 있는데, 이것들은 중세한국어의 ‘時時예’나

오늘날의 ‘시시로’에 해당한다. 현전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時時’와 같은 첩어에는 ‘ㄴ’나 ‘ㄷ’ 등의 몇몇 문법 요소만 결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世世로’, ‘代代로’와 같은 ‘X로’형은 『유가사지론』이 쓰였던 13세기 이후에 등장하였을 것인데, 이는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로’의 영향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11)</sup>

15세기의 첩어 ‘世世, 代代’는 부사였다. 그런데 ‘世世, 代代’ 등이 명사가 아닌 이상, 부사 ‘世世, 代代’의 형성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첩어인 부사 역시 통시적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전 시기에 ‘世世’가 품사 통용을 경험하여 ‘世世<sub>[명사]</sub> > 世世<sub>[부사]</sub>’가 되었고, 부사인 ‘世世’가 15세기에 부사 ‘世世’로 계승되었다고 보는 것이다.<sup>12)</sup> ‘날로’류와는 달리, ‘世世로’나 ‘世世예’는 문법 요소가 결합하지 않은 ‘世世’와 별다른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근대한국어 시기는 ‘X예’ 유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X로’ 유형이 활

10) 석독구결 자료에는 ‘\*時時’나, ‘\*時時’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11) 중세한국어 ‘스스기로’의 직접적 소급형인 ‘自 ㅅ ㅅ’ <화소09:10-11>, ‘自 ㅅ ㅅ’ <구인 15:05-06>와 같은 예가 참고된다. ‘自 ㅅ ㅅ’처럼 ‘X로’ 전체가 하나의 단어인 구성에서, ‘ㅅ’는 부사 파생 접미사로 간주된다. 이때의 ‘ㅅ’는 격조사에서 기원한 것이 대[이상 최성규(2016), pp. 304-307]. ‘自 ㅅ ㅅ’ 후계형인 ‘스스기로’는 ‘{代代, 世世}로’와 닮은 면이 있다. 기원적으로 ‘명사+조사’의 구성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다는 점, 15세기에 ‘X로’의 ‘X’만으로도 부사로서 기능하였다는 점이 그러하다. 15세기의 ‘스스기로’나 ‘{代代, 世世}로’는 격조사의 파생접미사화 문제와 직결되는 셈이다. 이것은 ‘{代代, 世世}로’와 계열 관계를 이루는 ‘{代代, 世世}예’의 약화와 연관된다. 기원적으로 격조사였던 ‘예’와 ‘로’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한편, ‘스스기로’의 ‘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규환(2009)를 참고한다.

12) 15세기의 ‘X로’에서 ‘X’가 명사로서 기능하지 못하며, 따라서 15세기 공식적인 품사 통용은 적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석독구결 자료에서 ‘時時’ 단독형이 부사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15세기 문헌에서 종종 등장하는 ‘代代’, ‘世世’도 구결 자료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사 ‘時時’의 부재 역시 자료상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발하게 쓰인 시기였다. 이 시기에 널리 사용된 ‘세세로’류 부사는 대체로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세세로’(<世世로), ‘딤딤로’(<代代로)는 중세한국어부터 사용된 부사로서, 이 시기의 문헌에도 쉽게 확인된다.

- (27) ㄱ. 溫公이 곶오딤 우리 집이 본딤 가난흔 결레라 세세로 淸  
白으로써 서르 닛고 내 性품이 밋나고 사치흔 거슬 갖거  
아니 햐야(溫公이 曰 吾家 | 本寒族이라 世以淸白相承  
고 吾性이 不喜華靡 햐야) <어제내훈 3:49a>
- ㄴ. 흔 텨쥬 | 되샤 세세로 싱활햐시고 세세로 직제햐심을  
위햐쇼셔 아멘 <성경직해 2:9a>
- ㄷ. 우리 집이 세세 직상가요 먼저 된 척니니 <한중록 3:290>
- (28) ㄱ. 나느 딤딤로 당나라 신해라 비록 네 천거흔 배 되나 엇디  
너를 조차 반햐리오(我世爲唐臣 雖爲汝所奏 豈從汝反邪)  
<오률행실도 충신도 30a>
- ㄴ. 둘이 우리 집을 딤딤 험가로 아더라 <한중록 2:44>
- ㄷ. 즈손이 계계승승햐야 잠영이 대대 잇고 과환이 대대로  
햐야(子孫繼承簪纓世世科宦代代) <관성제군오률행경 5a>

‘세세로’와 ‘딤딤로’는 중세한국어의 ‘세세예’나 ‘딤딤예’를 대신하여 쓰이게 된다. 당시 ‘世’와 ‘代’는 유의어였으므로, (28ㄱ)의 ‘世’는 ‘딤딤로’로 언해될 수 있었다. (28ㄷ)에는 ‘대대’와 ‘대대로’가 병렬되어 있는데, 이들은 표기상 ‘로’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의미의 부사였다.

이 시기에 처음 등장하는 ‘세세로’류에는 ‘넴넴으로’, ‘시시로’, ‘째째로’, ‘츄츄로’ 등이 있다. 용례가 극도로 적은 ‘넴넴으로’<sup>13)</sup>를 제외하

13) ‘넴넴으로’는 “야금야금, 조금씩, 점차, 점점”의 의미를 지닌 부사로서 현대한국어에는 직접적 계승형이 없다. ‘넴넴으로’는 한문 원문의 ‘漸’ 혹은 ‘漸漸’을 번역한 것인데, 중세한국어에는 ‘넴넴으로’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X로’의 ‘로’를 생각하면 \*漸漸으로’도 가능할 법한데, 이것 역시 등장하지 않는다.

씩거든 넴넴으로 죽을 주어 머기라(醒漸與粥食) <신간구황촬요 윤석창교수본 2b>

머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9) ㄱ. 죽식들로 하여 더욱 물 닷조오실 줄 아오매 시시로 싱각  
 혀옹고 눈물 지옹노이다 <현풍곽씨언간 건들156>  
 ㄴ. 시시로 보면 얼굴이 벼룩 문디 ㄱ툼면 역질이라(時時看  
 之狀如蚤痕者是也) <언해두창집요 상:12a>  
 ㄷ. 부인대전의 굴오디 죽식 빈 겨집이 옷도 너무 덥게 말며  
 밥도 너무 빅브르게 말며 (... 중략 ...) 모로미 시시로 건  
 니고 나흘 들애 머리 굽디 말라(婦人大全曰衣毋太溫 食  
 毋過飽 ... 須時時行步 臨月不可洗頭) <언해태산집요 15a>  
 ㄹ. 시시째 싱각하니 명심불망허리로세 <턴로력명 12b>  
 ㅁ. 시시긱긱으로 보존치 아니하라 <성경직해 5:113b>
- (30) ㄱ. 새 물을 새세로 먹교디 밤 디날 제는 먹키디 말며(新水를  
 時時飲之호디 過夜不飲호며) <마경초집언해 상:39a>  
 ㄴ. 소합원 아홉 환을 혼 병 술에 돕가 빼빼로 머그면 ㄱ장 시  
 기를 물리티느니라(蘇合元每取九丸浸一瓶酒中時時飲之  
 最辟鬼疫之氣) <벽온신방 14b>  
 ㄷ. 명당의서 말을 슈작홀 썩의 썩썩 웅장흔 종성이 들니니  
 이곳의서 나는 소리라 <을병연행록 7:117>  
 ㄹ. 내 후에 길히 쓸 금은 혼 반과 ㄱ을에 님는 붉은 금스 망  
 놓 옷 혼나 가져 가 전송하여 제 나를 새새 싱각하게 하  
 자 <삼역총해 2:6b-7a>

‘넵넵으로’는 원문의 ‘漸’을 번역한 것이지만, 이때의 ‘넵넵’은 ‘漸’의 한자음과는 관련이 없다. 한문의 ‘念念’도 시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한문 ‘念念’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후의 자료에서는 ‘漸漸’의 뜻을 지닌 ‘넵넵으로’는 찾기 어렵다. 이는 15세기부터 주로 쓰였던 ‘漸漸’과의 유의 경쟁에서 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漸’의 뜻을 지닌 ‘넵넵으로’는 ‘넵넵’처럼 단독으로 쓰인 적도 없었고 다른 문법 요소와 결합하여 쓰이지도 않았다.

‘시시로’나 ‘째째로’는 한문 원문의 ‘時時’와 관련된다. 그런데 근대한국어 자료에서 ‘時時예’를 찾기는 어렵고, ‘\*째째예’, ‘\*때때예’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X예’의 위상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이 시기에는 ‘시시로’와 ‘째째로’가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때때’나 ‘째째’도 적은 비율로나마 등장하였다. ‘시시’(時時)가 단독으로 쓰인 예는 없었으나, ‘시시’와 ‘째째’가 결합한 ‘시시째째’가 나타난 것이 이때부터였다.<sup>14)</sup> 그런데 ‘시시로’와 ‘{째째, 때때}로’의 의미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전자는 “자주, 종종”의 의미가 주로 나타나지만, 후자에는 그러한 의미 외에도 “때에 맞추어, 때에 따라”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자나 후자 모두, 현대한국어 ‘시시로’, ‘때때로’에서 간취되는 “경우에 따라서 가끔”의 의미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원문의 ‘次’를<sup>15)</sup> 언해한 ‘츠츠’나 ‘츠츠로’가 등장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

14) 자료가 한정되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29口)의 ‘시시직직으로’를 고려하면 ‘\*시시째째로’도 충분히 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15) 중세한국어의 ‘次’는 ‘次第로’나 ‘次第예’로 언해되었다. 그런데 ‘次第로’와 ‘次第예’는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

(i) ㄱ. 님니피 서르 次第로 나고 님 스시에 고본 곳들히 프고(葉葉相次 於葉葉間生諸妙花). <월인석보 8:12a>

ㄴ. 諸佛스 法은 상네 흐 마스로 諸世間이 너비 具足을 得 ㅎ야 漸漸 次第로 修行 ㅎ야 다 道果를 得게 ㅎ느니라(諸佛之法은 常以一味로 令諸世間이 普得具足 ㅎ야 漸次修行 ㅎ야 皆得道果케 ㅎ느니라). <법화경언해 3:48a>

(ii) ㄱ. 오늘 次第예 흐 암사스미 샷기 빅여서 後에 죽가지라 커늘(今日次一雌鹿有胎 乞延下次). <월인석보 4:64b>

ㄴ. 그 次第예 반드기 부테 드와야(其次에 當作佛 ㅎ야). <법화경언해 1:124a>

(i)의 ‘次第’는 ‘次’에 대한 언해로서, “어떠한 행위나 상황이 차례차례/순서대로”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i ㄱ)의 ‘님니피’나 (i ㄴ)의 ‘漸漸’이 그러한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ii)의 ‘次第예’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부사로 볼 수 없다. 이때의 ‘次第예’는 명사 ‘次第’에 격조사 ‘예(←에)’가 통합한 것으로서, 말 그대로 ‘순서’ 혹은 ‘차례’를 뜻한다. 적어도 15세기 중세한국어에서 ‘次第로’와 ‘次第예’는 서로 다른 범주였다. 한편, 중세한국어 자료에서 ‘\*츠츠로’, ‘\*츠츠예’ 등은 문증되지 않는다.

- (31) ㄱ. 수릿군과 밋 수릿에 떤는 디들히 츠츠로 횡군하다가(車兵及夾逐鱗次行營) <연병지남 22a>  
 ㄴ. 겨레 권당으로서 서르 통간흐면 갖가온 권당이면 죽을 죄오 먼 권당이면 츠츠로 죄를 감흐고(親屬相奸흐면 切親則死罪 | 오 疎親則以次減等흐고) <경민편 중간본 22b>
- (32) ㄱ. 네 가마 | 츠츠 빌 거시니 뷘느니 족족 니음드라 물을 시르면(則四釜次次就空連續載水) <신전자취염소방 13a>  
 ㄴ. 거문 보 가온디를 손으로 모화 쥐여 차차 우흐로 동괴디 <을병연행록 7:49>  
 ㄷ. 挨近前 츠츠 나아드다 <역어유해보 58a>

‘次’는 주로 ‘츠츠’나 ‘차차’로 언해되었다. 근대한국어까지의 ‘츠츠로, 차차로’에는 “차례차례로, 순서대로”라는 중세한국어 의미가 잔존하였는데, 위 예문의 ‘츠츠, 츠츠로’도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시기부터 “어떤 사물의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조금씩 진행되는 모양”이라는 현대적 의미도 확인된다. (32ㄷ)의 ‘츠츠’는 진행의 방향이 점진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 ‘츠츠’에는 중세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현대적 의미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부사 ‘츠츠’나 ‘츠츠로’는 문장의 특정한 구조에 얽매어 있지도 않았으며, ‘로’의 유무에 따라 의미의 차이도 드러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X로’ 부사의 양상은 개화기한국어도 유사하였다. 일부 표기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근대한국어 시기의 양상과 동일하기에, 몇몇 예를 살펴보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한다.

- (33) ㄱ. 리승지가 죽기 부귀를 세세로 누릴 줄만 알고 <추풍감수록 49쪽>  
 ㄱ. 사천년 유력 강토로 성군 명왕이 세세 상승흐시고 <신하

월보 1904년 제4권 12호: 483>

- ㄱ". 세세디디로 흥상 사름의 일싱 스적을 보건디 <신학월보 1908년 제6권 4호: 227>
- ㄴ. 진신인즉 디디로 진신이 되고 굴으디 상천인즉 디디로 상천이 되니 이거시 엇지 그른 의론이 아니라 <독립신문 1897.5.13>
- ㄴ'. 리종건 씨는 디디 무장가 후예로 장임과 대신씩지 지너 엇스나 <대한매일신보 1908.11.25>
- ㄴ". 증거를 그때 사름 압희 흘 뿐 아니라 디디세세에 드리우 니 <성경직해 9:36b>
- ㄷ. 새새로 쳐져오는 셔씨 부인의게 디허야도 간걸흔 턴물을 씨닷지 못흐난 바는 안이느 <눈물 하:81쪽>
- ㄷ'. 살풍경에 올넝거리는 가슴을 진정치 못허야 사지를 선무당의 대나리듯 벌벌 쏘며 숨도 감히 크게 못 슈이고 새새로 침만 쏘덕쏘덕 싱키논디 <눈물 하:136쪽>
- ㄷ". 여름 석들 일기는 더웁고 새새 큰 비가 오며 만물이 번성흐고 <신학월보 1902년 제2권 4호:157>
- ㄷ. 시시새새로 기다리고 <구의산 75쪽>
- ㄷ'. 법 밧기를 막음에 그득히 익모흐고 시시각각으로 목상 괴도흠에 잠심허야 <경향보감 2:296>
- ㄷ. 안악 장턴 신원 근처에서는 의병 십 명 가량이 시시로 출몰흐다 호고 <대한매일신보 1909.2.7>
- ㄷ. 그 디신으로 도리를 그르치는 칙을 내고 츄츄로 성경을 번역흐는 것이 해롭지 아닌 줄을 아지오 <경향보감 3:235>
- ㄷ'. 일순사와 일헌병의 경찰이 엄흐고 혹독흠으로 근일에는 츄츄 민심이 진정되논 모양이라더라 <대한매일신보 1910.2.13>

‘세세’와 ‘세세로’가 모두 문헌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빈도나 비중은 예전만 못하였다. ‘세세’는 ‘세세디디’와 같은 또다른 증첩형의 한 요소

로서 주로 쓰이게 되었고,<sup>16)</sup> 그 결과 오늘날 ‘세세’나 ‘세세로’는 잘 쓰이지 않게 되었다. ‘딤딤(로)~대대(로)’는 개화기한국어에도 생산적으로 쓰였으며,<sup>17)</sup> 이것은 오늘날까지 잘 쓰이고 있다. ‘째째’와 ‘째째로’ 역시 모두 개화기에 등장하지만, 여기서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것은 ‘째째로’(>때때로)뿐이다. ‘째째’는 신소설류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점차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째째로’에 “경우에 따라서 가끔”의 의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다.<sup>18)</sup> ‘시시’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단독형으로 쓰이지 않았다. 이미 이전 시기부터 약화될 대로 약화된 ‘시시에’ 역시 이 시기에 이르러 소멸하였다. ‘시시’는 ‘시시로’ 혹은 ‘시시째째(로)’의 형태로만 문증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현대한국어로 계승된다. 사실상 이 시기부터 ‘츄츄’가 ‘츄츄로’를 대신하였다. ‘츄츄로’는 거의 쓰이지 않았으며, 그나마 ‘츄츄로’가 쓰였던 문헌들에서조차 ‘츄츄’의 위력에 압도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4) 부사 ‘X{예, 로}’의 역사적 변화 과정

중세한국어	근대한국어	개화기한국어	현대한국어
{世世, 代代, 時時}예	{세세, 딤딤, 시시}예	-	-
{世世, 代代}로	{세세, 딤딤, 시시}로	{세세, 딤딤, 시시}로	{세세, 대대}로
-	{{(시시)째째, 츄츄}로	{{(시시)째째, 츄츄}로	{{(시시)때때, 차차}로

- 16) 현대한국어에는 ‘대대손손’이 흔히 쓰이는 표현이지만, ‘대대세세’(<딤딤세세), ‘세세대대’(<세세딤딤)도 드물게나마 쓰이고 있다.
- 17) 다만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표기에 차이가 있다. 고소설류에서는 구형[딤딤(로)]과 신형[대대(로)]이 모두 등장하지만(구형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음), 신소설류에서는 구형만 등장한다.
- 18) 《한불자전》에 기술된 ‘째째로’ 항목을 감안하면, 대략 이 시기부터 ‘째째로’에 “가끔”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밑줄 부분이 “가끔”에 해당하는 뜻풀이이다.

째째로: 時時 Fréquemment; souvent; à tout instant; de temps en temps

- (35) ㄱ. ‘X예’, ‘X로’, ‘X’는 시간 간격의 반복을 의미하였다.  
 ㄴ. ‘X예’, ‘X로’, ‘X’는 문장 내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ㄷ. 역사적으로 ‘X예’형은 ‘X로’형으로 대체되거나 합류하였다.  
 ㄹ. ‘X’형은 ‘X로’형과 지속적인 계열 관계를 형성하였다.

요컨대, ‘X예’형과 ‘X로’형은 유의 경쟁 관계에 있었으며, 첩어 단독으로 쓰인 ‘X’는 전자나 후자와 계열 관계를 이루던 부사였다. ‘X예’형과 ‘X로’형은 구형-신형의 관계이기도 하였는데, 근대한국어부터는 구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신형이 주로 쓰였다. 그 결과 새롭게 등장한 시간 간격의 반복을 나타내는 첩어 부사도 이 ‘X로’형이었다. ‘(시시)째째로 : (시시)째째’, ‘츄츄로 : 츄츄’의 관계는 이전 시기의 ‘X로 : X’ 관계에 유추된 결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결국, 현대한국어에서 시간 간격의 반복과 관련된 ‘세세로’류의 어휘들은 ‘X + 로’의 공시적 결합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현대한국어의 ‘대대로’와 ‘대대’는 각각이 통시태로서 현대한국어에 계승된 결과일 뿐, 현대한국어 ‘대대’에 ‘-로’가 결합한 것이 아니다.

현대한국어 사전에서 제시된 첩어와 ‘첩어 + 로’의 기술 방식도 주목의 대상이다.

- |                |           |
|----------------|-----------|
| (36) ㄱ. 차차(부사) | 차차로(부사)   |
| ㄴ. 시시(등재 ×)    | 시시로(부사)   |
| ㄷ. 때때(등재 ×)    | 때때로(부사)   |
| ㄹ. 세세(명사)      | 세세로(등재 ×) |
| ㅁ. 대대(명사, 부사)  | 대대로(부사)   |

‘차차’와 ‘차차로’는 역사적으로 계승된 단어로서,<sup>19)</sup> ‘-로’의 유무를 제외

19) 오늘날에도 ‘차차로’보다 ‘차차’가 훨씬 즐겨 쓰이는데, 이는 근대한국어 이후의 경향이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매우 드물지만 ‘차차로이’[‘차차(次次)’를

하고는 그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부사이다. ‘시시’와 ‘때때’는 이미 근대 한국어 시기부터 부사로서의 용법이 거의 사라졌고, 대신 ‘시시때때’처럼 쓰이거나 ‘X로’의 일부로서만 쓰였던 유형이다.

‘세세’와 ‘세세로’는 각각 명사와 명사의 곡용형(부사어)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런데 사전의 ‘세세’ 항목에는 단독형인 ‘세세’와 ‘로’가 결합한 ‘세세로’ 이외의 어떠한 곡용형도 찾을 수 없다. ‘세세로’ 이외에 ‘세세’가 다른 문법 요소와 결합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대한국어 ‘세세’는 ‘세세로’ 혹은 ‘세세생생’, ‘세세상전’ 등과 같은 단어의 어근으로서 기능할 뿐이다. 따라서 ‘세세로’는 명사 ‘세세’ 항목의 곡용형으로서 소개될 것이 아니라, 별개의 표제어로서 등재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대대’는 명사로도 사전에 등재되었다는 점에서 ‘세세’와 차이를 보인다. 편의상 『표준』의 예를 제시한다.

- (37) ㄱ. 집안 대대의 가풍. / 그는 선조 대대가 살아온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다.  
 ㄴ. 그놈 무서워 대대 살던 고향을 [... 후략] / [전략 ...] 대대 역관 하는 중인이지요.

그런데 (37ㄱ)의 밑줄 친 부분은 ‘[집안 대대]의’, ‘[선조 대대]가’로서, 명사가 아닌 명사구에 격조사가 결합한 것이므로, 이것만 두고서 ‘대대’가 온전한 명사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대의 가풍’이나 \*‘대

강조하여 이르는 말(『고려』)가 나타나기도 한다.

ㄱ. 못 건디게 외롭던 밤이 차차로이 물러 앓는 새벽, 나는 여전히 뜬눈이다.

ㄴ. 차차로의 물러앓은 고운 밤이여! <오장환, 길손의 노래>

어간 \*‘차차롭-’을 상정하지 않는 이상, ‘차차로이’의 ‘-이’는 ‘차차로’에 잉여적으로 붙은 접미사로 볼 수 있다. 다만 ‘차차로이’는 일부 문인의 작품에서만 쓰인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부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대가 살아온 고향'은 성립하지 않거나 매우 어색하기 때문이다.<sup>20)</sup>

통사적 구성이라고 해도 '대대'가 격조사와 결합한다는 사실은 분명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적어도 개화기 이전에는 이러한 양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대'가 '로' 이외의 문법 요소와 통사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던 시기는 1930년대 전후로 추정된다.

- (38) ㄱ. 卽 電光 野獸 疾病 等 此等은 모다 우리 先祖의 새로부터  
의 代代의 敵이엇든 것이다 <동아일보 1931.10.14>  
ㄴ. 晉州는 우리 代代의 故鄉이엇다 <동아일보 1937.7.31>

(38)은 표면적으로 '代代'가 격조사 '의'와 결합한 예인데, 당시에는 이러한 예도 자주 등장하지 않았다. (38ㄱ)은 '[우리 先祖의 새로부터의 代代]의'이고, (38ㄴ)은 '[우리 代代]의'로 분석되므로, 이때의 '의'도 통사적 구성에 결합한 조사이다. 오늘날의 '대대{의, 가}'는 이러한 통사적 구성의 연장으로 생각된다.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기부터 통사적 구성으로서의 '대대'가 '의'와 결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그리고 속격 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대대'가 다른 격조사들과 결합할 수 있었던 환경이 점차 확대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대대'가 통사적 구성을 중심으로 '대대<sub>[부사]</sub>' > '대대<sub>[명사]</sub>'의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

20)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대대'의 문법적 성격은 선행 성분의 한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존명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본고는 ‘날로’류와 ‘세세로’류 부사(어)를 중심으로 시간의 반복과 관련되는 ‘X로’의 의미 용법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히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날로’류는 조사 ‘로’와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 요소가 결합한 통사적 구성에서 비롯하였다. ‘날, 들, 히’ 및 ‘ㄴ, 時’ 등 시간 명사가 선행 요소로 쓰여 “날마다”, “때마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들은 특정 문맥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경우에 따라서, 종종”의 제3의 의미를 얻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비합성적인 의미 용법이 확대되면서 본래 통사적 구성 ‘X로’가 담당한 “매(每) X마다”의 의미는 다른 방식(예: 보조사 ‘마다’)으로 대체되고, 조사 ‘로’의 시간 반복의 용법은 극히 축소되어 현대한국어에 이르렀다. 요컨대, ‘날로’류는 기원적으로 체언과 조사의 통사적 결합이 어휘화를 겪어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이다.

‘세세로’류는 첩어가 포함된 부사로서, 중세한국어 시기에 첩어 단독인 ‘X’, 첩어에 ‘예(←에)’가 결합한 X예, 첩어에 ‘로’가 결합한 ‘X로’가 있었다. 이들 세 유형은 일정한 계열 관계를 이루었으나, 그 역사적 변화의 과정은 결코 일정하지 않았다. ‘X예’는 중세한국어에서 주로 쓰이다 근대한국어 시기부터 거의 사라진 유형이지만, ‘X로’는 중세한국어부터 근대한국어를 거쳐, 오늘날까지 꾸준히 사용된 유형이다. 단어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없지는 않으나, ‘X’는 중세한국어부터 오늘날까지 ‘X예’나 ‘X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의 부사로 기능해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시간 간격의 반복을 나타내는 ‘세세로’류는 ‘첩어 + 로’라는 통사적 구성이 아니라, 이전 시기의 ‘X로’ 유형이 계승된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시간 간격의 반복을 나타내는 ‘X로’의 의미를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둘째, ‘날로’류와 ‘세세로’류를 구분함으로써 ‘X로’의 성격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였다. 셋

째, ‘X로’에 대한 현대한국어 공시적 해석에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그간 현대한국어의 ‘X로’에 대한 논의들은, ‘X’와 ‘로’의 공시적 분리 여부가 ‘X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분석 자체가 무의미한 ‘로’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다만, 지면 관계상 ‘로’의 다양한 용법을 아울러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시간과 관련된 ‘에’와 ‘로’의 유사점·차이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지 못한 점, ‘時’와 ‘때’(>때)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점도 한계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자 료】

#### 1. 사전류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2009),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박재연 주편(2010), 『(필사본)고어대사전』, 학교방.
- 박재연 · 이현희 주편(2016), 『고어대사전』, 선문대학교 출판부.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1998), 『연세 한국어 사전』, 서울: 두산.
- 劉昌惇(1964),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출판부.
- 한글학회 편(1992), 『우리말 큰사전』, IV. 옛말과 이두, 어문각.
- 황문환 외 엮음(2016),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 2. 인터넷 자료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다음, 고려대한국어대사전(<https://dic.daum.net/index.do?dic=kor>).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https://ilis.yonsei.ac.kr/dic/>).

### 【논 저】

- 고영근(1989/1999), 『국어형태론 연구』 증보판, 서울대학교출판부.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총서 30, 태학사.
- 김원중(2013), 『한문 해석 사전: 허사 900개로 익히는 한문 해석의 모든 것』, 글항아리.
- 김혜영(2018), 『부사격 조사 ‘(으)로’의 특수한 용법에 대하여』, 『국어학』 88, 국어학회, pp. 173-199.
- 남기심(1993), 『국어 조사의 용법: ‘-에’와 ‘-로’를 중심으로』, 서광학술자료사.
- 백두현(2003), 『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 손혜옥(2008), 「조사결합어에 관한 연구」, 『형태론』 10, 형태론, pp. 85-110.
- 오규환(2009), 「‘스스로’와 ‘절로’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국어학논집』 6, 역락, pp. 37-54.
- 이양혜(2000), 『국어의 파생접사화 연구』, 박이정.
- 이현희(2009ㄱ), 「‘조초’의 문법사」, 『진단학보』 107, 진단학회, pp. 129-175.
- \_\_\_\_\_ (2009ㄴ), 「‘대로’에 대한 통시적 고찰」, 제9회 국어연구회 발표요지문.
- \_\_\_\_\_ (2010), 「근대한국어의 잉여적 파생접미사 덧붙임 현상」, 『한국문화』 5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p. 3-22.
- 이희자·이종희(2010),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사 사전』 수정증보판, 한국문화사.
- 一歸 역주(2003/2005), 『(譯註) 首楞嚴經』, 샘이깊은물.
- 최성규(2016), 「차자표기 자료의 격조사 연구 —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형용(2003),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국어학총서 45, 태학사.
- \_\_\_\_\_ (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 허웅(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원고 접수일: 2019년 4월 22일

심사 완료일: 2019년 6월 3일

계재 확정일: 2019년 6월 4일

ABSTRACT

---

A Historical Study on Korean Adverb ‘nalro’ and  
‘sesero’ Types

Kim, Han Gyu\* · Jang, Goeun\*\*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historical explanation on the Korean adverbs ‘nalro’ (‘날로’) and ‘sesero’ (‘세세(世世)로’) types, which mean the repetition of time intervals. Although the two types appear similar in terms of morphology and semantics, they have different features in word formation. The ‘nalro’ type, a syntactic unit of a temporal noun and the postposition ‘ro’, has the meaning of ‘per X’, repetition of X intervals, e.g. ‘nalro’ (daily), in Middle Korean, since the case marker ‘ro’ has temporal usage for one of its meaning. The ‘nalro’ type adverbs come to obtain the meaning of ‘X by X’, like ‘nalro’ (day by day) in the context of change of state; thus their non-compositional meaning may lead to the lexicalization of the whole construction. The ‘sesero’ type, on the other hand, has paradigmatic relations with the reduplicated form ‘X’, ‘Xye’ and ‘Xro’, which are combined with ‘ye’ (←e) and ‘ro’ to reduplicated form, and these words have almost same usage (e.g. ‘sese’, ‘seseye’, ‘sesero’;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interpretation of time intervals of ‘sesero’ type

---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erbs comes from reduplication, and given our diachronic perspective, the ‘Xye’ and ‘Xro’ can be identified as forms inherited from a time prior to Middle Korean.